

中國의 석유산업 (16)

제6장 中國의 석유무역

1. 원유·석유제품무역

(1) 생산·소비동향

중국이 원유생산을 본격화 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였다. 大慶原油를 중심으로 1970년대는 원유생산량이 급증세를 보여 1978년에는 1억톤대에 달했다. 원유생산량은 그후 1983년까지 1억100만에서 1억600만톤에 정체됐으나, 84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1986년은 1억3,069만톤으로 전년대비 600만톤이 증가했으나 그후 증산량은 매년 적어져서 1990년은 전년대비 85만톤의 증가에 불과했다.

석유수입국 중국이 자급이 가능하게 된 것은 1963년 이었다. 동년의 원유생산량은 불과 648만톤이었으나 1990년의 생산량은 1억3,830만톤으로 26년동안 21.3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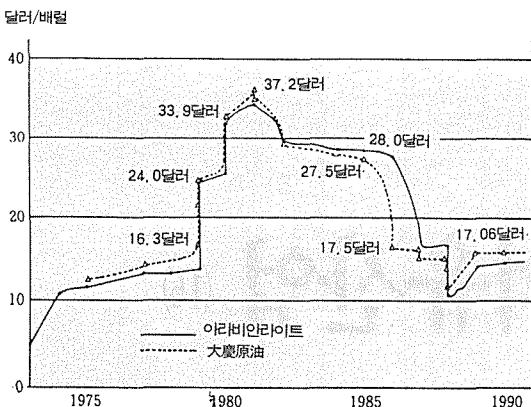
석유의 증산에 비례하여 석유소비량도 매년 확대되었으나, 생산이 정체된 80년대 전반에는 석유의 소비량도 억제되었다. 제6차 5개년계획기간(1981~85년)의 석유소비량을 보면, 1981년은 8,725만톤으로 전년대비 479만톤이 감소했으며, 82년에도 계속 감소되었다. 1983년, 84년에는 증산으로 소비

량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서 85년은 9,509만톤으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1980년대 전반에 소비량이 보합세를 나타낸 것은 원유생산의 정체가 최대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나 내수억제와 수출확대라고 하는 에너지정책에도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국제시장에서의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었다. <그림 6-1>을 보면, 中國의 주요수출원유인 大慶原油의 가격은 제2차 석유위기 이후, 아라비안·라이트가격과 마찬가지로 급상승하여 1980년 12월에는 33.9달러, 81년 1월에는 37.2달러를 기록했다.

中國은 1977~78년에는 대량의 플랜트를 도입하여 외화획득을 위해서도 원유수출을 확대시키는 상황이었다. 제4차 플랜트도입기의 이 시기에는 省에너지가 중요한 정책이 되어 화력발전소를 연료로써 석유에서 석탄으로 전환 등도 추진했다.

석유소비량은 1986~87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87년 1억312만톤에 달했으나 중국의 에너지소비구조에서의 석유의 비중은 1985년이래 계속 보합세를 나타내 1990년대에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에너지소비 총량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점유율은 원유증산에서는 60년대, 70년대 상승하였으나

〈그림 6-1〉 원유가격의 추이



〈註〉 아라비안라이트 정부공식판매가격

〈자료〉「出光石油資料」1989년판

〈표 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6년 23.0%를 최고점으로 점유율은 저하되기 시작하여, 85년 이후는 17%대에 머물렀다.

에너지소비총량은 높은 경제성장률에 따라 80년대에 급속도로 신장되었다. 동시에 석유의 소비량도 증가했으나, 에너지소비총량증가의 주요인은 석유보다도 석탄이었다.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차지하는 석탄의 세어는 석유의 증산으로 저하되어 왔으나, 1976년 69.9%를 한계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1987, 88년에는 76% 대를 유지하고 있다.

1989년의 1차에너지 소비구성은, 석탄 76.0%, 석유 17.1%, 수력발전 4.9%, 천연가스 2.0%였으나, 90년대는 江蘇省, 廣東省등의 원자력발전이 가동되었으나 석탄의 증산율이 원자력을 크게 상회하여 석탄의 세어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2000년의 경제수준을 1980년 대비 4배로 한다는 이론바 4倍增構想에서는, 석유는 1억톤에서 2억톤으로, 석탄은 6억톤에서 12억톤으로 배증이 목표다. 석유의 倍增計劃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예상되나, 석탄의 12억톤은 1995년까지는 달성된다고 하며 2000년의 목표는 14억톤이다.

2. 원유수출과 시장

중국의 원유 수출은 1973년에 183만톤으로 시작하여 100만톤을 넘어서고, 그후 74년 507만톤, 75년 988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78년에는 1,131만

톤으로 1,000만톤대에 달했다.

원유의 생산은 1978년 1억톤대에 달한 후 83년까지 5개년간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국제시장가격의 급상승과 석유수출에 의한 외화획득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출량은 1979년 1,343만톤에서 1983년 1,483만톤으로 불과 140만톤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1984년에는 원유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854만톤으로 급증하였으며 수출량도 전년의 1,483만톤에서 2,201만톤으로 증가했다.

1975년 아래 원유생산총량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율은 12~14%에 머물렀으나, 84년에는 그 점유율이 19.2%로 급상승 했다.

中國의 원유수출이 최고점에 달한 것은 1985년으로 원유생산량이 1억2,490만톤으로 전년대비 1,000만톤 이상의 증산으로 수출량도 전년대비 800만톤 증가한 3,003만톤으로 처음으로 3,000만톤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후 1986년 2,850만톤에서 매년 하강세를 보여 1990년에는 2,399만톤까지 감소했다. 그것은 2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1980년 이후 원유생산량의 신장이 저하된 점이다. 그것은 주요유전인 大慶油田의 연간생산이 5,000만톤으로 보합세를 나타냈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국제시장의 원유가격 하락이다. 大慶原油의 가격은 1985년 27.5달러에서 86년 17.5달러로, 배럴당 10달러가 하락됐다.

2회에 걸친 석유위기를 계기로 석유의 국제가격은 등락이 심했으나 중국원유도 거의 같은 사정이었다. 中國은 1982년 3월부터 내수용 석유판매가격에도 국제시장가격을 적용하는 등, 기존의 2체제의 가격정책을 시정하고 있어, 향후의 원유수출량은 더욱 국제시장의 동향이 좌우될 것이다.

中國원유의 평균수출단가는 1982년에는 톤당 224달러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후 85년 174달러를 피크로 하여 88년에는 99달러로 82년가격의 50%이하수준까지 저하됐다. 1989년에는 110달러로 약간 반전했으나 그것은 국제시장가격을 반영한 결과였다. 석유수출은 중국에는 중요한 외화수입원이나, 국제시장가격의 침체등으로 1986년 이후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85년 19.9%를 정점

으로 86년 7.4%, 87년 5.6%로 하락하였고, 88년은 8.6%로 약간 상승 했으나 향후 더 이상의 세어는 기대하기 어렵다.

원유생산량에서 차지하는 수출량의 세어는 1985년에 24.0%로 거의 4분의 1까지 되었으나 그후 수출량의 감소로 1989년에는 17.7%까지 저하됐다. 중국은 근래 국제시장가격을 감안하면서 원유생산량의 18~25%를 수출로 전환하여 왔으나 그것은 내수를 엄격히 억제한 결과였다.

90년대 경제성장을 연간 평균 7%대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에서 그이상 내수를 계속 억제하는 것은 곤란하며 향후는 국제가격으로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중국원유의 수출시장은 日本이 최대로서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1988년의 시장별세어를 보면 日本 52.1%, 싱가포르 16.4%, 美國 13.0%로 상위 3개국에서 80%를 차지했다. 이러한 경향은 1985년이래 계속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서독, 영국 등 유럽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등 약간이지만 시장은 다각화하고 있다.

日本에 대한 수출은 약간의 스포트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장기 협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1985년 전년의 308만톤에서 848만톤으로 급증했다. 그후 1986년 622만톤, 87년 480만톤, 88년 450만톤으로 감소했으나, 싱가포르에서의 중국원유의 위탁정제는 90년대도 계속 될 것으로 예측된다. 90년 1월 22일字, *The Straits Times* 紙는 中國化工輸出入總公司가 90년에도 45,000~55,000 배럴/일의 중국원유를 싱가포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신한 것으로 전하는 한편, 중국이 수입중동원유를 싱가포르에서 정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

중국의 산유지대가 西北과 東北에 편재되어 있고, 더욱이 수송체계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南部 廣東省등의 수요는 수입석유로 보충하는 편이 비용적으로도 유리하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싱가포르와의 석유거래는 홍콩을 잇는 3국간 무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中國의 對북한 원유수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

어, 1984년 이후에도 연간 110~120만톤이 수출되고 있다. 소련·동구와의 무역결제가 90년에는 현금결제방식으로 변경됐음에도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은 그대로 바터방식이 계속되고 있다.

브라질에 대한 수출은 동국에서 鐵礦石의 수입에 대한 것으로 중국은 上海寶山製鐵工場의 원료석을 오스트랄리아와 브라질을 중심으로 수입하고 있어 브라질은 중국에서 2번째로 큰 철광석 공급국이다.

3. 석유제품부역

석유제품의 수출은 196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본격화 된 것은 70년대 중반 이후이다. 수출량은 1973년 116만톤, 75년 210만톤으로 크게 증가했다. 1976, 77년은 일시적으로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79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수출량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1985년 621만톤으로 최고점을 맞이한 뒤 86년 545만톤, 89년 474만톤으로 하향세에 있었으나 90년에는 526만톤으로 전년대비 11.1%의 증가를 기록했다.

수출평균단가도 원유와 같이, 1980~82년은 높고 1985년 이후에는 하향세를 나타냈다. 1982년 톤당 수출액은 단순평균으로 300달러였으나, 그후 1985년 248달러, 86년 152달러, 87년 154달러, 88년 142달러로 계속 떨어졌다. 그러나 89년 160달러로 상승하여 1990년에는 167달러가 됐다.

수량베이스에서 수출석유제품별 점유율을 보면 1982년은 가솔린이 238만톤으로 48.5%로 제품수출이 약 5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경유가 158만톤, 32.3%로써 이 두 품목이 석유제품수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수출량이 최고점에 달했던 1985년이 되면 수출구성비는 크게 변화하여 가솔린점유율이 20.9%로 저하된 반면, 경유의 점유율은 35.6%로 상승했다. 이것은 동년에 경유의 국제가격과의 관계가 있다. 동년은 나프타가 새로운 수출품목으로 등장하여 그 점유율도 27.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85년은 경유 35.6%, 나프타 27.4%, 가솔린 20.9%로서 상기 3품목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1987년의 수출구성비는 85년과는 상당한 변화를 보

였으나 기본적인 변화는 없어 경유 27.1%, 가솔린 23.5%, 나프타 23.3%였다. 기타 연료유, 윤활유 등의 점유율은 상당히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수출품 목이 다양화 되었다.

1983년 9月, 석유정제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는 中國石油化工總公司가 설립되어 석유제품의 생산, 판매는同공사와 관계공사에서 통일적으로 취급하게 되었다. 즉 同공사의 제품별생산량을 보면, 1987년의 경우, 연료유 2,880만톤, 경유 2,194만톤, 가솔린 1,582만톤, 등유 407만톤, 나프타 100만톤 등이다. 1988년에는 가솔린과 등유의 생산량이 약간 증가했으나 구성비는 87년에 비해 달라지지 않았다.

시장별로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日本시장이 최대이며 수량으로도 34~45%를 차지하는 최대국이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홍콩, 美國의 순이다. 1989년 시장별 점유율은 日本 36.3%, 싱가포르 23.8%, 홍콩 21.9%, 美國 10.9%이며 이들 4개국 지역에서 수출량의 92.9%를 차지하고 있다.

4. 원유, 석유제품수입

中國은 1963년에 석유가 자급자족 되기까지 주로 소련에서 석유를 수입했다. 1963년 이후는 수입량이 급감하여 64년 수입량이 국내수요의 10% 이하가 되고, 70년에는 100% 국산으로 대체됐다.

그러나 이것은 높게 유가를 책정하여 엄격한 계획 하에 배급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급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70년대 전반은 경유의 부족이 현저했고, 70년대 후반부터는 석유가 증산되어, 석유제품의 공급도 확대되었으나 한편 대외개방과 경제 개혁으로 고도성장 와중에서 석유로의 수요는 급속도로 확대됐다. 그중에서도 수송수단의 확대로 가솔린의 수요가 연간 9% 가까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中國은 1988년부터 원유·석유제품의 수입을 증가시켰다. 원유의 경우 1980년 37만톤, 82년 30만톤, 86년 46만톤으로 양적으로 미미한 것이었으나 88년에는 86만톤으로 증가하고 89년 326만톤으로 급증했다. 원유의 수출입의 균형은 1985년 3,003만톤이 수출초과 였으나, 86년 이

후는 원유수출량이 점차 감소하여 수출초과폭도 매년 축소되어 90년의 수출초과폭은 2,107만톤으로 감소됐다.

한편 석유제품의 수입은 1985년까지는 미미했으나, 86년 217만톤으로 급증했다. 88년 306만톤으로 증가하고, 89년 534만톤으로 급증했다. 1989년의 석유제품의 수출량은 474만톤에서 중국은 89년에 일시적으로 석유제품의 수입국이 되었다. 1987년 석유제품수입은 경유 162만톤으로 수입량 전체의 81.8%를 차지했고, 기타 가솔린 13만톤, 同 6.6%, 연료유 12만톤 6.0% 등이다.

원유수입량의 증가는 전술한 바와같이 국내수송의 문제도 있으나,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가솔린등 중간유분 수율이 높은 경질원유의 정제때문이다. 현재 沿海와 南方地域에 건설중인 각 정유공장(廣州, 鎮海, 大連, 福州, 茂名, 海口等)은 당초부터 경질원유의 분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中國의 석유정제능력은 1989년 현재, 1억139만톤으로 알려져 있으나, 원유생산계획(95년 1억 4,500만톤, 2000년 1억 7,000만톤, 연간 500만톤 증가)의 달성이 곤란한 상황에서, 외화획득의 필요성 때문에 수출로 일정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수입원유의 정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1988년의 주요석유제품의 소비량을 85년과 비교할경우 경유 32.8%, 가솔린 28.2%, 연료유 14.1%로 제각기 크게 신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등유만이 7.1%가 감소했다. 경유와 가솔린의 신장세가 특히 두드러졌으나 그동안 中國에서는 자동차의 수입을 엄격히 억제하고 있어 실제의 수요는 이 수자를 뛰어 넘는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경유는 3/1이 농촌수요이다. 농촌에서의 수요의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경유에 의한 화력발전이나 트랙터의 장거리수송을 억제하고 있으나, 농촌에서의 기계화촉진으로 경유의 수요핍박은 당분간 해결될 기미가 없다.

5. 석유의 유통·관리정책

원유와 석유제품의 유통·관리제도는 복잡하게 변화되어 왔으나 1980년대에서는 대개 아래와 같은 유통제도가 정착했다.

원유의 약 90%는 國家計劃委員會의 계획 하에서 中國石油化工總公司가 각 정유공장으로 직접 공급한다. 석유제품은 1950년부터 1984년까지 商業部 또는 그 직속공사가 통일적으로 買入·販賣하여 왔으나, 이후는 中國石油化工總公司가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985년 1월, 商業部石油局과 직속공사를 모체로 하는 中國石油化工總公司가 설립되어 행정과 분리된 기업으로 석유제품의 유통을 담당하도록 했다.各省의 석유공사도 행정으로부터 독립된 販賣公司가 설립되어 이들 기업은 商業部와 中國石油化工總公司의 이중지도 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이외에 제조기업의 판매부문도 있고, 석유제품의 국내 유통체계는 80년에 들어 다양화되고 있다.

원유와 가솔린, 등유, 경유, 윤활유의 수출입 업무는 국가계획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수출입계획 하에서, 中國化工輸出入總公司가 통일적으로 집행한다. 1984년부터 시작된 무역제도의 개혁에서는 수출입 대리제도가 시행·실시되어 왔으나, 1989년부터는 석유무역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대리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가 사용되게 됐다.

(1) 국가계획 또는 정부간협정에 의한 석유의 수출입, 바터무역은 中國化工輸出入公司가 통일적으로 한다.

(2) 國務院各部門, 지방정부와 기업이 하고 있는 석유수출입 업무는 中國化工輸出入總公司가 행하고, 스포트수입 등은 해외에 있는 同 공사의 매입기관에서 대행한다.

(3) 각종 프로젝트 안건이 필요한 석유의 수출입은 中國石油化工總公司, 中國石油天然가스總公司와 中國化工輸出入總公司가 공동으로 하고, 실제 수출입 업무는 中國化工輸出入總公司가 대행한다.

(4)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출입 라이센스는 對外經濟貿易部가 발급한다.

中國의 석유관리정책은 공급량의 절대적인 부족을 어떻게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배분할 것인가에 있기 때문에, 관리정책은 다음 2가지로 집약된다. 즉 “통일적인 매입과 판매”와 “유효이용과 절약(省에너지)”이다.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1950년대에는 「석유의 통일매입, 통일판매 잠정규정」이 공포되어, 가

솔린, 경유, 연료유와 등유의 수입관리의 일체화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후 원유생산이 본궤도에 오른 1977년에는 「제품유에 관한 통일매입·배분·정량공급시행변법」이, 국제시장가격이 최고를 기록한 1981년에는 「제품유절약에 관한 지령」이 공포되었다.

70년대 전반은, 석유제품의 수급불균형이 컸기 때문에 각종 절약령이 공포되었으나 후반에는 외화 획득 때문에 소비억제와 더불어 수출의 확대를 실시했다. 제품가운데 특히 경유의 공급부족이 현저했던, 1973년 6월에는 「경유의 계획적 분배, 공급시행변법」이 공포되어, 내연기관이외에 대한 경유의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었고 1974년에는 가솔린, 경유등은 구입허가증이 발급되었다.

中國은 석유의 국제가격의 상승에 맞춰 1970년대 후반부터 석유의 수출을 본격화시켜 왔으나, 일련의 통일관리령이나 절약령에서 보면, 이 시대의 수출은 “기아수출”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국내수요의 억제와 수출의 확대라는 정책은 80년대 후반에도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으나, 1988년경부터 계획적으로 수입을 확대하도록 해서 수급불균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계속했다.

6. 석유무역의 과제와 전망

中國이 경제규모를 2000년까지 4배(1980기준)가 되기 위해서는 90년대는 연 7%의 성장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소비량은 5%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80년대의 실적을 보면 에너지소비량이 이러한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中國의 제7차 5개년계획(1986~90년) 말에 있어서 각종 에너지의 생산목표는 석탄 10억톤, 원유 1억 5,000만톤, 전력 5,500억 kWh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탄과 전력은 1989년에 10억 2,577만톤, 5,795kWh로 그 시점에서 90년 목표를 달성했으나, 원유는 90년에도 1억 3,830만톤으로 목표치를 1,170만톤 하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목표치는 1995년 1억 4,500만톤, 2000년 1억 7,000만톤으로 하향수정했다. 2000년의 목표달성을에는 연간

3,000만톤이라는 대량증산이 필요하나, 이것은 西北部(타림분지) 유전의 개발속도에 달려있다.

1980년대 후반, 중국 원유생산이 저조하기 시작한 원인으로 중국의 분석가는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①초기에 개발된 주요유전이 노후화되어 생산코스트가 상승하고 있다.
- ②신규유전의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
- ③원유가격의 불합리로 기업이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경영자, 노동자의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다.
- ④1981년부터 유전에도 生產量請負制가 도입되어,

동시에 임금의 자기조달율의 인상이 추진되었으나, 생산코스트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기조달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거의 모든 유전이 적자로 신규개발투자의 여력이 없다.

석유제품에 대해서 中國은 1989년에는 일시적으로 수입국이 됐으나 수출의 부진은 정유공장의 적자경영에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中國의 석유산업은 (油田) 1988년에 14억元 전후의 손해를 나타냈으나, 그 원인은 원유와 제품간의 가격차에 있었다. 1988년 시점에서 원유 1t를 생산하기에 필요한 비용은 94元을 넘고 톤당 26元 이상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원유 1톤당 생산코스트는 120元 이상이다. 그러나 판매가격은 110元에서 억제되고 있어, 기업은 톤당 10元의 적자를 보게 된

다. 1988년 당시 원유가격은 15달러/배럴 이었으나, 人民元換算으로 약 450元이 되고 110元이라는 국내가격은 국제시장의 3분의 1이 된다.

1990년에 들어와 원유가격은 톤당 30元 인상시켰으나, 현재는 경제산업전체에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제산업은 1990년 시점으로 5억달러의 이자부담을 앓고 있고, 기업의 경영상황도 열악한 상황에 있다.

中國의 석유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원유가격과 제품가격의 불합리를 어떻게 조정하는가이다. 中國의 가격체계는 광업산품은 낮고, 가공제품은 높게 책정되어와, 석유산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면 1톤당 원유와 가솔린, 등유의 가격비는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1.3:1.16임에 대하여, 중국에서는 1:5.9:1.41과 격차가 크고, 또한 가솔린과 경유도 국제시장에서는 1:0.79 정도임에 비해 중국은 1:0.39로 격차가 크다. 시장원리에서 고려된 가격체계는 원유의 합리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기업간의 수익격차를 확대시키고, 제품생산량의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1984년부터 경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그 과정에서 가격체계의 불합리도 개선하기 시작했으나 결과는 동일 품목에서 계획가격(공정가격)과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등, 오히려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현재의 이중가격은 시장가격으로 가는 과도적 조치이긴 하나,

〈표 6-1〉

중국의 1차에너지 소비구성

년	에너지소비총량 (표준탄화산만톤)	에너지소비구성 (%)			
		석 탄	석 유	천연가스	수력발전
1953	5,411	94.3	3.8	...	1.8
1960	30,188	93.9	4.1	0.5	1.5
1963	15,567	88.9	7.2	0.8	3.1
1970	29,291	80.9	14.7	0.9	3.5
1975	45,425	71.9	21.1	2.5	4.6
1976	47,831	69.9	23.0	2.8	4.3
1980	60,275	72.2	20.7	3.1	4.0
1982	62,067	73.7	18.9	2.5	4.9
1985	76,682	75.8	17.1	2.2	4.9
1987	86,632	76.2	17.0	2.1	4.7
1988	92,997	76.1	17.1	2.1	4.7
1990	96,934	76.0	17.1	2.0	4.9

〈자료〉「中國統計年鑑」1990年版

〈표 6-2〉

중국의 원유생산, 석유수출의 추이

(단위: 수량 = 만톤, 금액 = 만달러, 단가 = 배럴/톤)

	원유생산량 (a)	원 유 수 출				석유제품수출		
		수출량(b)	b)/(a) (%)	수출액	평균단가	수출량	수출액	평균단가
1962	575	6	1.0	3
1965	1,131	20	1.8	10
1970	3,065	20	0.7	19
1975	7,706	987	12.8	210
1978	10,405	1,131	10.9	217
1979	10,615	1,343	12.9	303
1980	10,595	1,330	12.6	420
1982	10,212	1,468	14.4	331,569	224	491	(145,155)	(300)
1983	10,607	1,483	14.0	490
1984	11,461	2,201	19.2	570
1985	12,490	3,003	24.0	523,637	174	621	154,005	248
1986	13,069	2,850	21.8	238,155	84	546	83,296	152
1987	13,414	2,724	20.3	314,097	115	494	76,422	154
1988	13,687	2,605	19.0	257,964	99	479	68,145	142
1989	13,745	2,439	17.7	269,853	110	474	75,755	160
1990	13,830	2,339	17.3	338,970	141	526	87,737	167

註: ①石油製品 항목은 1987년 이후는 86년 이전과 비교하여 대상이 되는 제품 유의 종류가 약간적다.

②...은 불명

③1982년의 수출액은 추계에 의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약간적다.

〈자료〉 「中國統計年鑑」各年版, 通關統計

〈표 6-3〉

중국의 석유수출입(1980~90年)

(단위: 만톤)

		1980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원	수 출	1,331	1,468	1,483	2,201	3,003	2,850	2,724	2,605	2,439	2,399
유	수 입	37	30	37	25	-	46	-	86	326	292
비	교	+1,294	+1,438	+1,446	+2,181	3,003	+2,804	+2,724	+2,519	+2,113	+2,107
가	수 출	118	238	138	116	130	106	116	103
솔	수 입	-	-	-	-	0.3	10	13	13
린	비 교	118	238	138	116	+130	+96	+103	+90
등	수 출	47	55	56	50	46	37	44	47
유	수 입	5	9	10	12	15	0.1	0.1	1
비	교	+42	+46	+46	+38	+31	+37	+44	+46
경	수 출	...	163	221	200	134	144
유	수 입	4	137	162	238
비	교	...	+163	+117	+63	△26	△94
제	수 출	...	491	490	570	621	546	494	479	474	526
품	수 입	...	5	9	217	198	306	534	316
합	비 교	...	+486	+612	+329	+296	+173	△60	+210

註: ①1980~85년, 자료 ①과 ②의 수량이 다른 경우는 ②에 의함.

②...는 단위미만 또는 불명

〈자료〉 ①1980~85년은 「中國能源統計年鑑」 能源出版社, 1986年.

②1986~90년은 通關統計

〈표 6~4〉

중국의 국별원유수출(1985~89年)

(단위 : 수량 = 1,000톤, 금액 = 1,000달러)

국·지역	1985		1986		1987		1988		1989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日本	11,735	2,184,373	11,223	996,348	12,618	1,560,117	14,337	1,510,154	13,605	1,659,395
싱가포르	8,484	1,424,482	6,220	454,499	4,799	567,234	4,499	385,896	4,027	423,883
美國	4,474	797,752	4,168	356,047	3,682	438,329	3,586	339,616	4,293	525,735
브라질	2,446	415,284	2,735	196,580	2,426	260,291	586	48,220	471	51,379
북한	1,218	116,114	11,245	70,449	1,236	81,951	1,202	74,223	1,091	60,984
필리핀	711	121,758	479	37,310	944	104,844	606	51,461	558	55,265
루마니아	521	98,897	60	4,957	858	105,541	687	56,482	377	45,341
토루코	349	67,073	668	61,995	819	95,303	485	32,518	261	30,578
스페인	335	63,622	899	74,019	—	—	—	—	—	—
이탈리아	220	45,444	230	10,715	—	—	97	9,182	—	—
칠레	74	14,341	117	6,261	260	30,492	224	21,283	—	—
유고슬라비아	101	20,095	313	41,784	412	54,308	—	—	—	—
프랑스	—	—	47	5,654	—	—	—	—	—	—
西獨	—	—	—	—	116	14,536	—	—	—	—
東獨	—	—	—	—	251	22,152	251	22,152	—	—
英國	—	—	—	—	337	40,275	270	24,919	—	—
뉴질랜드	—	—	—	—	107	11,680	—	—	—	—
오스트랄리아	—	—	—	—	—	—	38	4,439	58	6,702
스위스	—	—	—	—	355	42,237	—	—	—	—
(a) 원유수출량	31,173		28,462		28,971		27,494		25,681	
(b) 원유수출량 (억 달러)		54.5		23.2		34.1		26.4		29.6
(c) 상품수출총액 (억 달러)		273.5		309.4		394.4		475.4		524.9
(b)/(c)(%)		19.9		7.4		8.6		5.6		5.6

〈자료〉「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各年版

中國의 국별석유제품수출(1985~89年)

(단위 : 수량 = 1,000톤, 금액 = 1,000달러)

국·지역	1985		1986		1987		1988		1989	
	수량	금액								
日本	2,316	527,995	1,899	231,301	2,246	339,132	1,976	256,960	1,829	283,375
홍콩	959	218,949	901	121,338	1,080	158,268	1,082	140,903	1,101	167,097
美國	1,327	311,608	1,036	136,995	934	138,159	382	53,706	551	88,086
싱가포르	1,261	281,917	1,058	130,194	429	68,251	915	120,277	1,199	194,612
캐나다	51	12,327	100	15,324	102	16,124	86	11,980	93	15,450
태국	79	21,869	35	9,434	43	9,887	54	13,110	83	19,058
미얀마	—	—	—	—	—	—	1	365	1	418
스위스	192	42,250	285	34,750	41	5,873	100	13,368	63	10,562
필리핀	18	3,684	55	5,724	31	4,924	1	202	—	—
방글라데시	48	10,645	...	7	20	3,138	21	2,812	—	—
英國	—	—	36	4,015	—	—	—	—	—	41
프랑스	—	—	—	—	19	3,090	44	6,200	39	6,483
스리랑카	16	5,755	20	6,966	16	3,258	12	2,440	—	—
北韓	10	4,297	19	8,889	10	7,494	7	5,944	8	5,565
印度	10	3,304	4	833	5	877	3	550	...	24
말레이시아	1	394	...	249	4	950	1	165	2	582
쿠웨이트	...	36	...	54	...	44	—	—	—	—

이 란	42	9,801	-	-	-	-	-	-	-	-	-
네 팔	...	45	...	25	...	31	-	-	...	144	
파 키 스 탄	-	-	-	-	...	5	-	-	-	-	
마다가스카르	-	-	-	-	-	-	12	2,388	3	628	
기 타	6,354	1,460,240	5,515	714,623	4,981	760,322	4,705	633,421	5,035	805,542	

註 : ...는 單位未滿

〈자료〉「中國對外經濟貿易年鑑」各年版

〈표 6-6〉

中國의 석유제품수출구성(1982, 85, 87년)

(단위 : 만톤, 만달러, %)

	1982		1985		1987	
	수 량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수 량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수 량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가 솔 린	238 (48.5)	67,436 (45.8)	130 (20.9)	32,005 (20.8)	116 (23.5)	17,932 (23.5)
나 프 타	-	-	170 (27.4)	39,787 (25.8)	115 (23.3)	17,713 (23.2)
등 유	52 (10.6)	16,947 (11.5)	38 (6.1)	9,523 (6.2)	44 (8.9)	7,632 (10.0)
경 유	158 (32.2)	47,036 (32.0)	221 (35.6)	49,368 (32.1)	134 (27.1)	20,415 (26.7)
중 유	2 (0.4)	619 (0.4)	5 (0.8)	1,099 (0.7)	6 (1.2)	... (...)
연 료 유	33 (6.7)	7,119 (4.8)	35 (5.6)	5,728 (3.7)	52 (10.5)	5,345 (7.0)
운 활 유	3 (0.6)	1,184 (0.8)	5 (0.8)	1,530 (1.0)	8 (1.6)	2,142 (2.8)
기 타	5 (1.0)	6,814 (4.7)	17 (2.8)	14,865 (9.7)	19 (3.9)	5,243 (6.8)
합 계	491 (100)	147,155 (100)	621 (100)	154,005 (100)	494 (100)	76,422 (100)

註 : ①...는 원자료에 記載되지 않은것. ...은 단위미만 또는 불명

②1982년의 합계금액은 상기품목만의 합계로 실제보다 적다.

〈자료〉通關統計, 기타

무역거래에서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으로 이행하고 있는 한편으로, 국내가격의 불합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외화획득의 필요성에서, 일정한도의 원유, 석유제품의 수출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이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반과 같은 수출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원유생산의 저조, 정제설비·가공설비의 확충에 의한 내수의 증가로 원유의 수출량은 그 한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1990년에는 가솔린, 등유, 경유와 윤활유등의 각종석유제품의 정체를 위해 600~700만톤의 원유가 추가적으로 필

요하나 이에 반해 원유의 증산은 300만톤 이하로 머물 가능성이 크고 수급의 차이는 매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中國에서의 에너지부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공업도시 上海에서도 1989년 공장의 가동일이 주 5일, 또는 4일인 달이 있으며, 더욱이 임시적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석탄의 생산이 비교적 순조로워 이러한 상황에서는 석탄의 수출확대 조차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불합리한 가격조정과 더불어 재정지출에 있어서 에너지수출에 따른 외화수입을 우선적으로 에너지산업에 돌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다. ♦

〈계속·朱挺彬譯〉